

코로나 극복에 빛난 '마을공동체' '복지 최일선'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지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정 손길 '세바퀴' 천마스크 만들기 동참 은평구, 의료진 속옷·양말 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제작·나눔, 의료진 물품 후원, 지역사회 소독·방역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마을예술창작소 '세바퀴'는 천마스크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 1000개 이상을 제작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금천·은평·양천구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스크 제작·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지원활동가, 마을공동체사업지기, 지역주민 40여명이 모여 면 마스크를 만들어 대구시와 금천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은평구는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실천계획을 수립, 주민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스크 제작 모습 /서울시

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 마을넷 중심으로 1000개의 면마스크를 제작·전달했다.

양천구는 '힘내라 양천!' 캠페인을 전개해 13개 마을공동체 모임이 6000개 면마스크 제작에 참여했다.

의료진을 위한 물품과 간식, 후원금을 보내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대구 의료진 100명이 입을 수 있는 속옷과 양말세트를 보냈다. 중랑마을넷과 은평구마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후원금과 간식 등 각종 물품을 전달했다.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는 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방역활동도 벌이고 있다.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상가, 자치회관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방역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마을활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 캠페인도 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최순옥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서울 전역의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이 위기상황에서 더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가동 현장돌봄·방문요양보호사 5.8만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5만8000장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적마스크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장돌봄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요양시설에 우선적으로 4만8000매를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쉽터를 통해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 1만매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8일부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물품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가 어려웠던 요양보호사를 위해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초구 양재도서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385억... 문화 균형발전 도모

서울시, 작년보다 예산 대폭 늘려 공간 일부, 시민 특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올해 시내 공공도서관에 385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 누구나 걸어서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5개관에 52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15개관에 220억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 도서관과 예산을 대폭 늘렸다.

노후한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등 5곳에 26억6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순 도서관 시설 개선 외에 도서관 공간의 일부를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12개 자치구 15개 도서관이 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이달 중 8개 도서관을 선정해 6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리모델링과 공간 개선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운영비와 도서관임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운영지원 예산은 총 132억원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 이용환경 개선과 질적 성장으로 모든 시민이 도서관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본부 둔 신천지 2개지파 행정조사 실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정보 확보" 바돌로매 지파, 서울에만 2000여명 고의로 누락·은폐시 법 따라 고발

서울시는 서울에 본부를 둔 신천지 2개 지파를 대상으로 종합행정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강서구 화곡동 바돌로매 지파 본부와 노원구 상계동 서울야고보 지파 본부에 총 40명을 투입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조사 목적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조사 대상인 바돌로매 지파는 서울 화곡동 시온교회를 본부로 하고 부천교회, 김포교회, 광명교회를 관할



신천지예수교 폐쇄 명령서. /서울시

하며 서울에만 20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야고보 지파는 서울 중계동 서울교회를 본부로 동대문교회, 구리시온교회, 포천교회 등을 담당하며 시내 신도 수는 1만2000여명으로 서울·경기의 4대 지파 중 가장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신도와 시설의 각종 내역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고의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이나 시설 정보에 허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시는 신천지 신도 중 116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아직도 조사를 못 하고 있으며 시설도 당초 170개를 제출받았으나 시민 제보로 추가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고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창인 와중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개신교회에는 예배 자제를 계속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본부장은 "계속 설득해서 교회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야간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야간관광 마케팅을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체 등의 추천과 SK텔레콤 T맵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야간관광 안내서인 '야간관광 디렉터리북'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추천 가볼 만한 야간관광 100선'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정하고, 6월 중에는 '야간관광 국제포럼', '야간관광 테마 여행주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면 1인당 관광지출액 확대, 야간 교대시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한강밤도깨비야시장

종로구 내 5000여개 점포, 임대료 운동 동참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약 5000여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동대문종합시장 관리를 맡은 동승에서 상가 내 4300여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낮추기로 했고, 광장시장주식회사 역시 3개월 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했다.

통인시장은 상인회비 1개월 면제와 더불어 도시락카페 24개 가맹점에 지난 1년간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일관 드림팰리스는 2~3개월간 임

대료를 최대 35% 깎아주기로 했다. 개인점포에 해당하는 인사동14길 44(한정식 돌레골)도 1개월 임대료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20개 전통시장에는 화재안전패키지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구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용자를 지원하고,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종로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김현정 기자